

# 경제동향

## 요약

**고용** 취업자/실업률·고용률

**생산** 제조업지수/출하·재고지수

**소비** 대형소매점 판매액

**물가** 소비자물가

서울연구원 시민경제연구실

장윤선 연구원 changyuns@si.re.kr

**부동산** 주택매매가격/주택전세가격/주택월세가격

**금융** 가계대출/개인파산/신설·부도/신용보증

**수출입** 수출입액/품목별 수출입/국가별 수출입

서울연구원 시민경제연구실

최윤진 연구원 erdene@si.re.kr

## 경제동향 | 요약



## 고용

- 서울의 7월 취업자는 516만 6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천 명(0.0%) 증가하여 전년과 비슷한 수준
- 산업별로 사업·개인·공공서비스에서 전년 동월 대비(5.5%) 가장 크게 증가
- 임금근로자는 전년 동월 대비 0.9% 증가한 반면 비임금근로자는 3.2% 감소
- 고용률은 60.6%로 전년 동월 대비 0.3%p 상승했으며, 실업률은 3.9%로 전년 동월 대비 0.6%p 하락



## 생산

- 서울의 7월 제조업생산지수는 97.7로 전년 동월 대비 3.5% 증가
- 7월 제조업 출하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0.7% 감소, 재고지수는 11.0% 증가하여 경기 둔화/하강 국면을 시사



## 소비

- 서울의 7월 대형소매점 판매액은 2조 2,606억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24.0%로 크게 증가했으며, 전국(6조 8,027억 원)의 33.2%를 차지
- 백화점 판매액(6.1%)과 대형마트 판매액(42.9%) 모두 전년 동월 대비 증가



## 물가

- 서울의 7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12.2(2010년=100.0)로 전년 동월 대비 1.0%의 소폭 상승에 그쳐 저물가 기조 지속
- 서비스물가지수(2.1%), 생활물가지수(0.1%)는 상승한 반면, 신선식품물가지수(-2.6%), 상품물가지수(-0.8%)는 하락



## 부동산

- 서울의 7월 주택매매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0.37% 상승한 101.3 기록
- 서울의 7월 주택전세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0.19% 상승한 101.7 기록
- 서울의 7월 월세통합가격지수는 100.2로 준전세의 상승폭이 확대되었으나 월세와 준월세는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전월 대비 0.01% 하락



## 금융

- 서울의 7월 전체 대출금 잔액은 652조 8,530억 원으로 전월 대비 0.81% 증가
- 서울의 7월 가계대출 잔액은 252조 9,640억 원으로 전월 대비 0.9% 증가
- 서울의 7월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162조 3,904억 원으로 전월 대비 1조 6,517억 원(1.0%) 증가, 주택담보대출이 가계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4.2%
- 서울의 7월 신설법인 수는 2,660개로 전월 대비 6.4% 감소, 부도법인 수는 8개로 전월과 동일
- 서울의 7월 보증지원금액은 977.1억 원, 보증지원건수는 3,821건으로 전월 대비 각각 2.2% 감소, 2.3% 증가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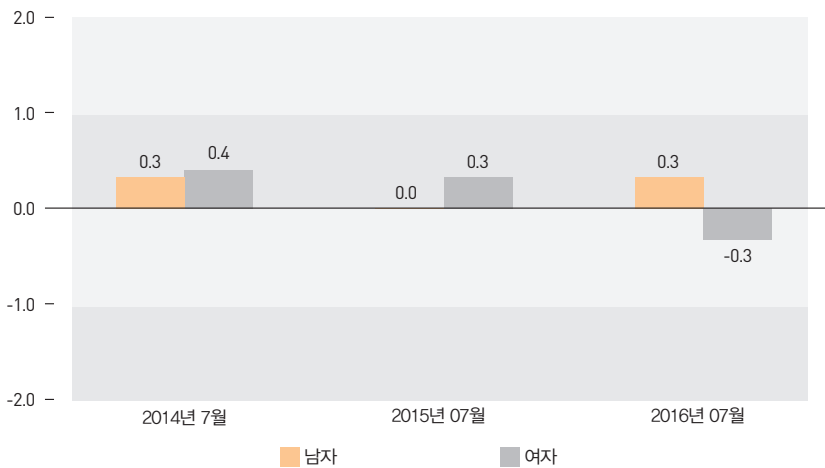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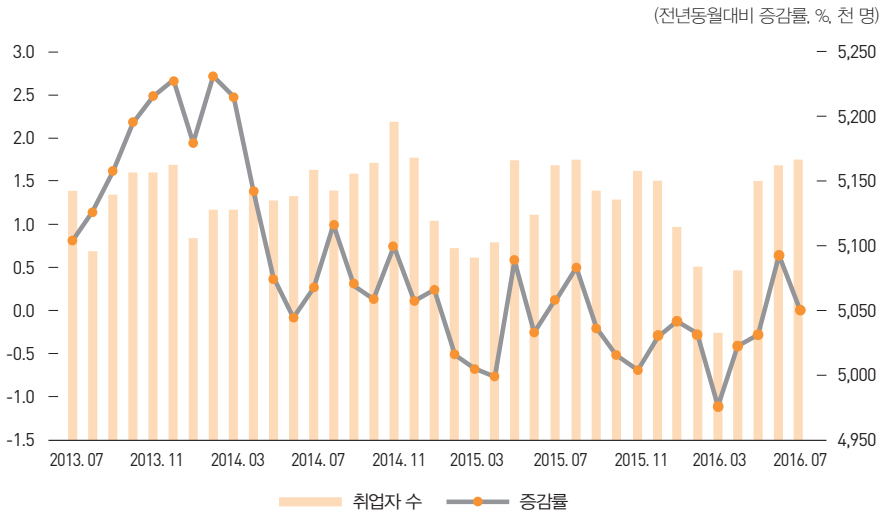
## 수출입

- 서울의 7월 수출액은 40.9억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 동월 대비 23.3% 감소, 품목별로는 자동차부품, 국가별로는 중국이 1순위 차지
- 서울의 7월 수입액은 106.0억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 동월 대비 19.3% 감소, 품목별로는 원유, 국가별로는 중국이 1순위 차지

# 취업자

## 서울의 7월 취업자 수는 516만 6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비슷한 수준

- 서울의 7월 취업자는 516만 6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천 명(0.0%) 증가
- 성별로 보면, 남자는 288만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8천 명(0.3%) 증가, 여자는 228만 6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6천 명(-0.3%) 감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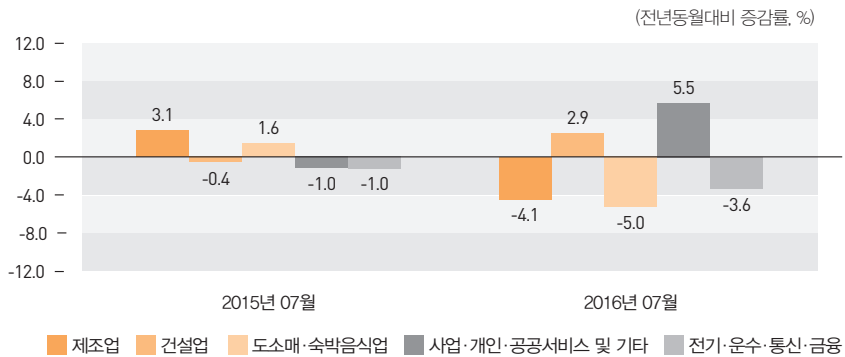


자료 통계청, 경인지방통계청

〈그림〉 서울의 월별 취업자 추이 및 증감률

## 7월 산업별 취업자는 사업·개인·공공서비스에서 증가한 반면 도소매·숙박·음식점은 감소

- 전년 동월 대비 도소매·숙박·음식점업 7만 3천 명(-5.0%), 전기·운수·통신·금융업 3만 명(-3.6%), 제조업 2만 명(-4.1%) 감소한 반면, 사업·개인·공공서비스업 및 기타 11만 4천 명(5.5%), 건설업 1만 명(2.9%) 증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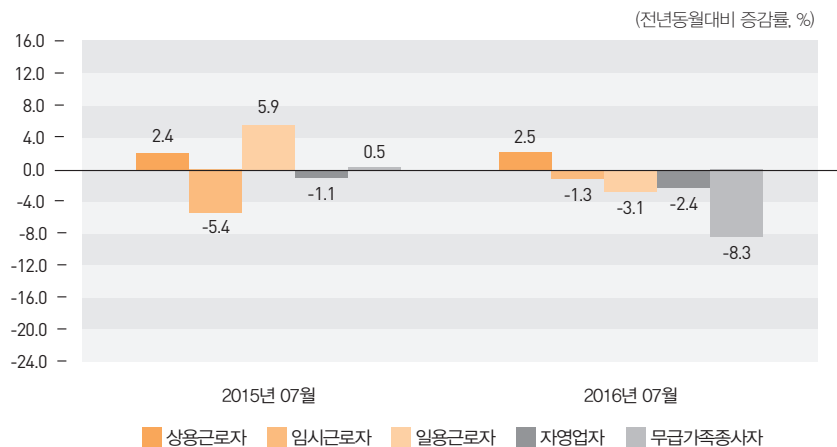


자료: 통계청, 경인지방통계청

〈그림〉 서울의 산업별 취업자 증감률

## 서울은 7월에 상용근로자의 취업만 증가하고 타 부문은 모두 감소

-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중 임금근로자는 전년 동월 대비 3만 8천 명(0.9%) 증가, 비임금근로자는 전년 동월 대비 3만 6천 명(-3.2%) 감소
-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6만 4천 명(2.5%) 증가한 반면, 임시근로자는 1만 4천 명(-1.3%), 일용근로자는 1만 1천 명(-3.1%) 감소
- 비임금근로자 중 자영업자는 2만 3천 명(-2.4%), 무급가족종사자는 1만 4천 명(-8.3%) 감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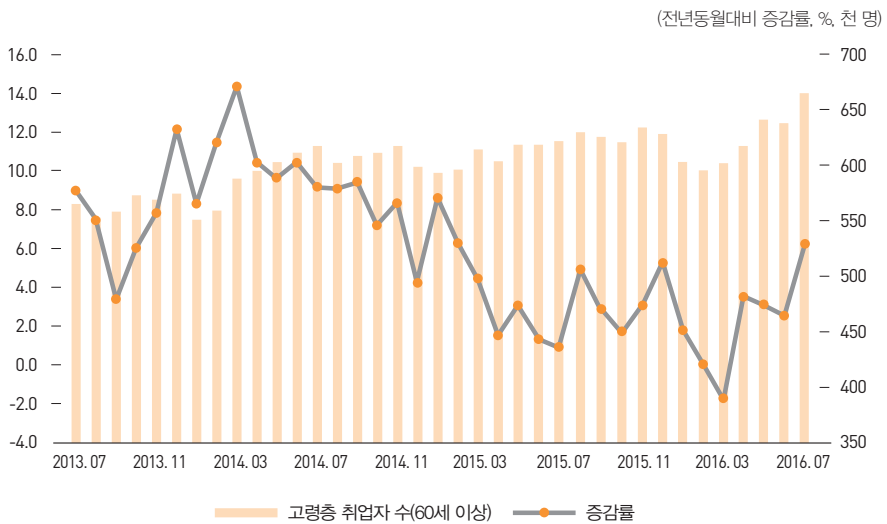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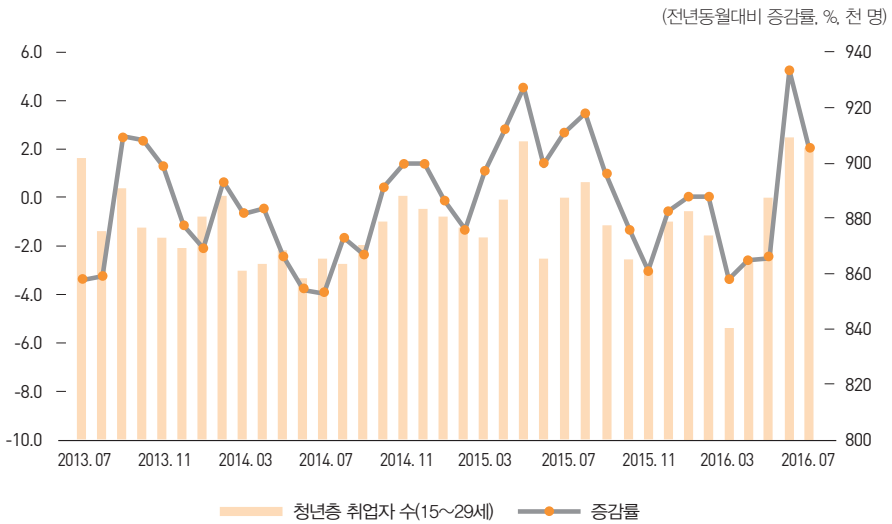


자료: 통계청, 경인지방통계청

〈그림〉 서울의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증감률

## 서울의 7월 청년층(15세~29세) 취업자와 고령층(60세 이상) 취업자 모두 전년 동월 대비 증가

- 서울의 7월 청년층(15세~29세) 취업자 수는 90만 8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.3% 증가
- 서울의 7월 고령층(60세 이상) 취업자 수는 66만 2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6.3% 증가
- 올들어 주춤하거나 감소하던 청년층 취업자 수는 6월부터 전년 동월 대비 증가 추세로 전환



자료 통계청, 경인지방통계청

<그림> 서울의 월별 청년층 및 고령층 취업자 추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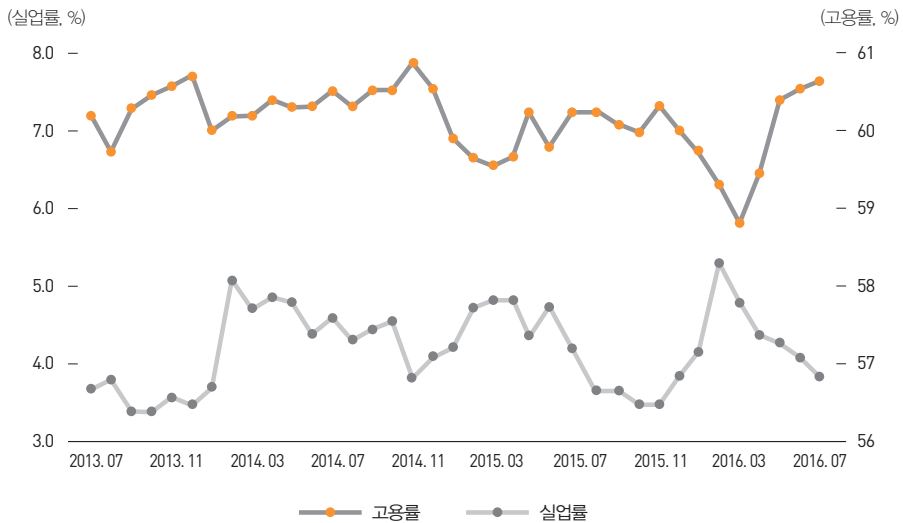
## 고용률 및 실업률

### 서울의 7월 고용률은 전년 동월 대비 소폭 상승했으나, 전국 대비 낮은 수준

- 서울의 7월 고용률은 60.6%로 전년 동월 대비 0.3%p 상승했으며 전국(61.2%)보다 낮은 수준
- 성별로 보면, 남자는 70.7%로 전년 동월 대비 0.7%p, 여자는 51.4%로 전년 동월 대비 0.1%p 상승

### 서울의 7월 실업률은 전년 동월 대비 감소했으나, 전국 대비 높은 수준

- 서울의 7월 실업자는 20만 8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만 8천 명(-7.8%) 감소
- 실업률은 3.9%로 전년 동월 대비 0.6%p 하락
- 성별로 보면, 남자는 3.8%로 전년 동월 대비 0.6%p 하락, 여자는 3.9%로 전년 동월 대비 동일
- 서울의 7월 실업률은 전년 동월 대비 하락했지만, 전국(3.6%)에 비하여 0.7%p 높은 수준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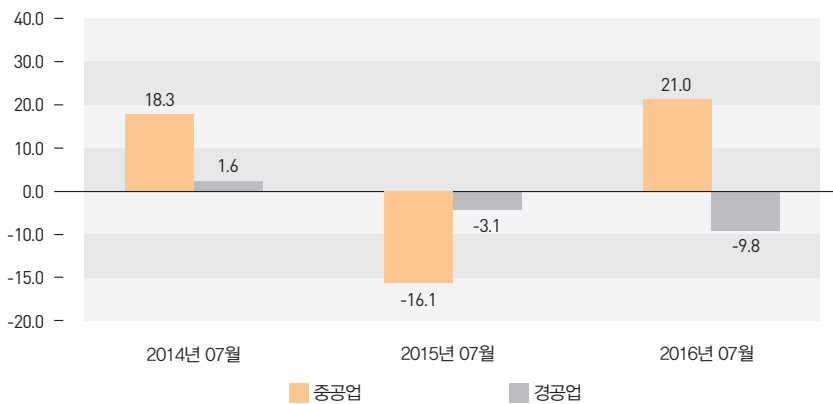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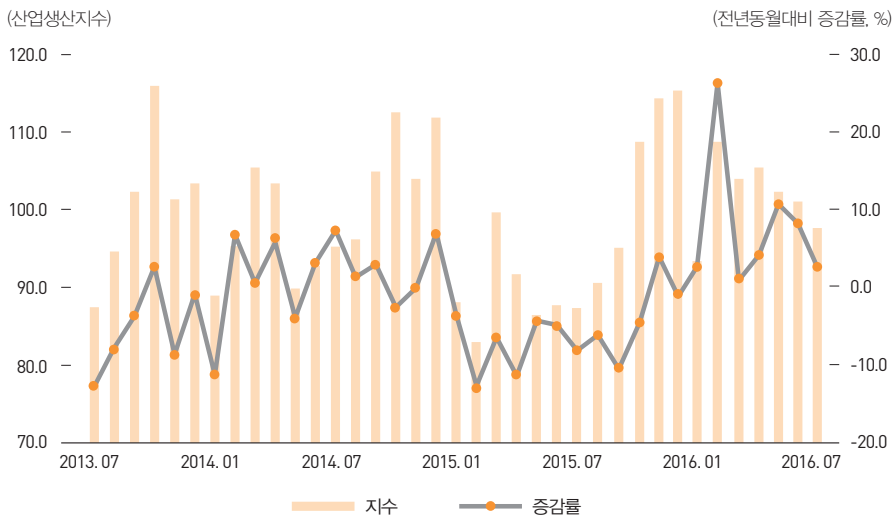
자료 통계청, 경인지방통계청

〈그림〉 서울 실업률, 고용률 추이

# 생산

## 서울의 7월 제조업생산지수는 97.7(2010=100)로 전년 동월 대비 3.5% 증가

- 서울의 7월 제조업생산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3.5% 증가하여 올해 들어서 지속적으로 플러스 성장률 기록
- 전년 동월 대비 중공업 부문은 21.0% 증가한 반면, 경공업은 9.8% 감소
- 업종별로 전년 동월 대비 비금속광물(303.7%), 의약품(47.5%) 등은 증가한 반면, 고무 및 플라스틱(-52.4%), 전기장비(-9.8%) 등은 감소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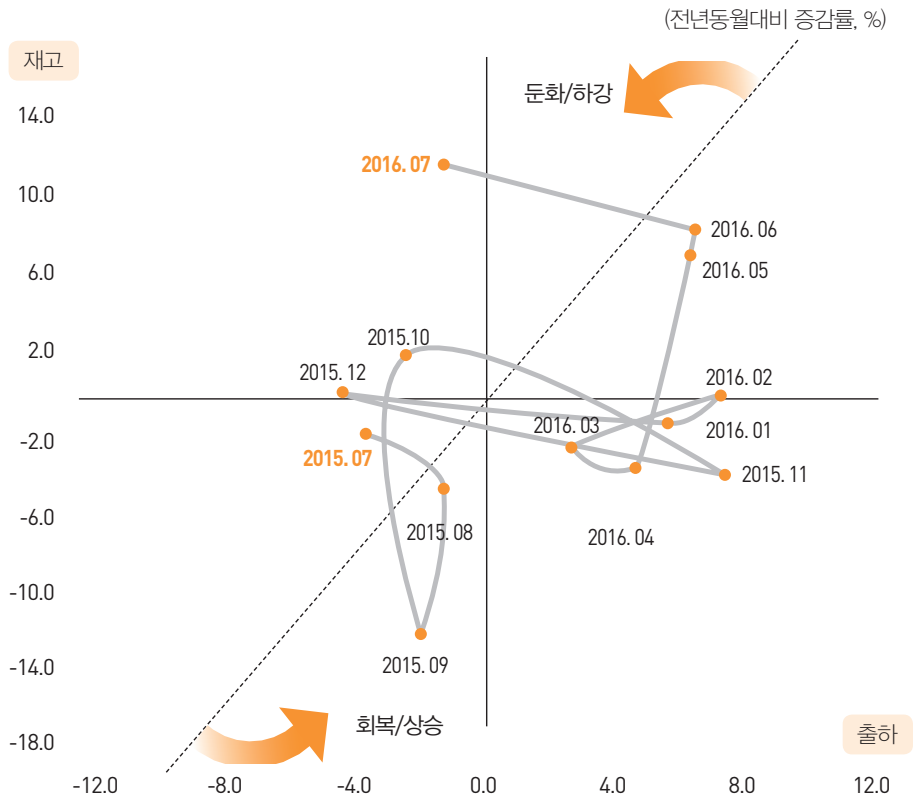
자료 통계청, 경인지방통계청(2010=100)

〈그림〉 산업생산 추이 및 증감률

## 출하·재고 순환

서울의 7월 제조업 출하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0.7% 감소, 재고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11.0% 증가하여 경기 둔화/하강 국면을 시사

- 서울의 7월 출하지수는 101.7(2010=100.0)로 전년 동월 대비 0.7% 감소
- 서울의 7월 재고지수는 148.9(2010=100.0)로 전년 동월 대비 11.0% 증가



자료 통계청, 경인지방통계청(2010=100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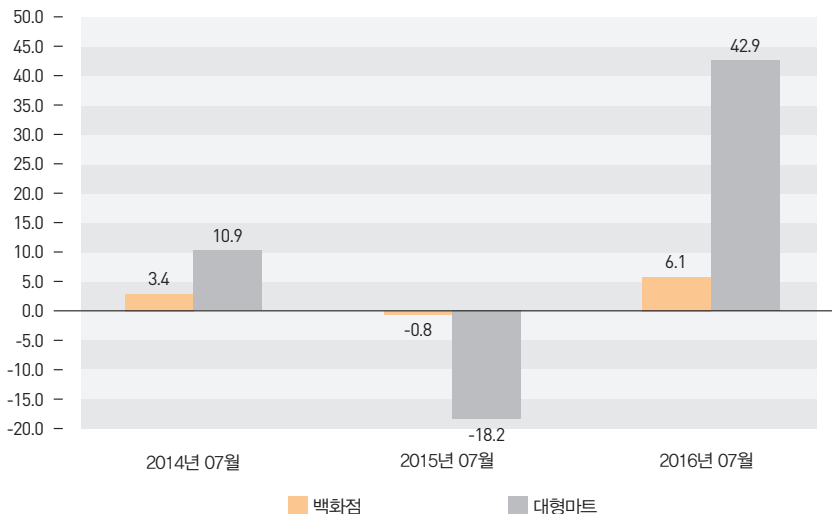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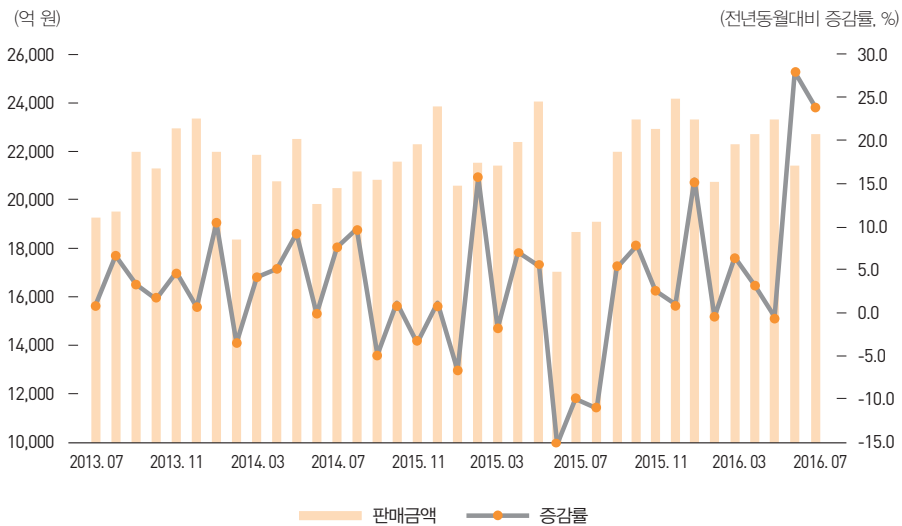
〈그림〉 서울의 출하·재고 증감률 추이



# 소비

## 서울의 7월 대형소매점 판매액은 전년 동월 대비 24.0% 증가

- 서울의 7월 대형소매점 판매액은 2조 2,606억 원으로 전국(6조 8,027억 원)의 33.2%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 동월 대비 24.0% 증가
- 7월 백화점 판매액은 9,909억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6.1% 증가, 대형마트 판매액은 1조 2,697억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42.9% 급증



자료 통계청, 경인지방통계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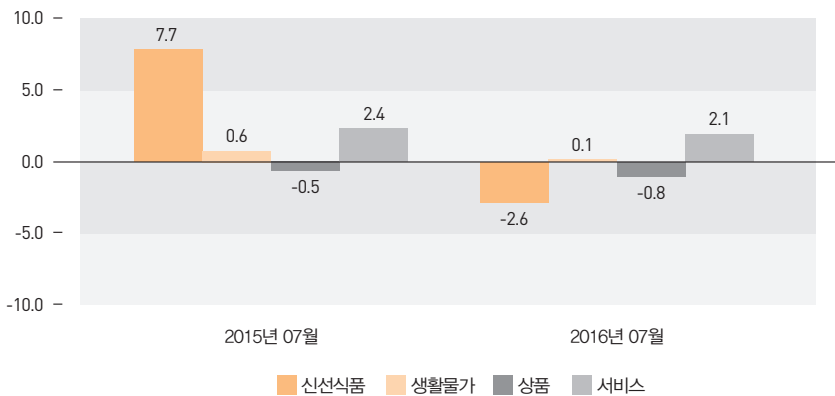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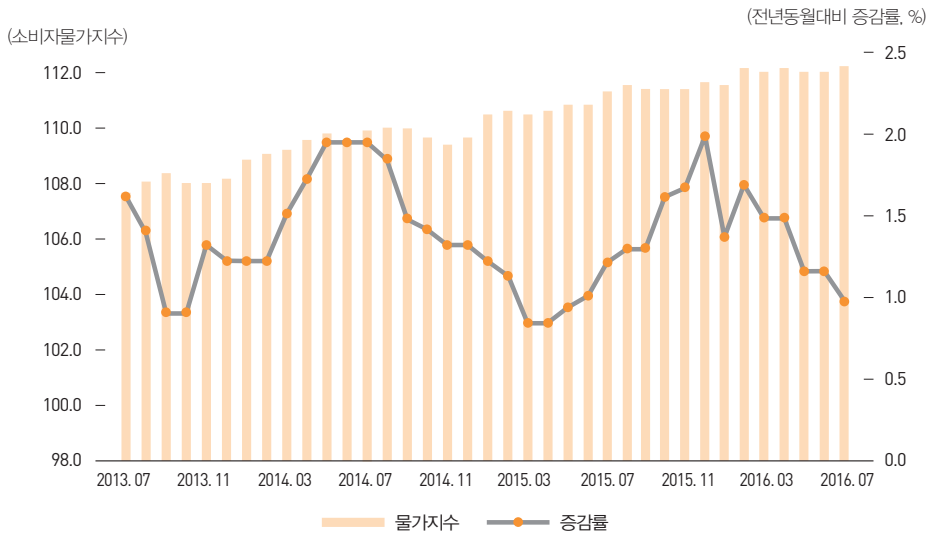
〈그림〉 서울의 대형소매점 판매 추이 및 증감률

## 경제동향 | 물가

## 물가

## 서울의 7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1.0% 상승에 그쳐 저물가 기조 지속

- 7월 서울시 소비자물가지수는 112.2(2010년=100.0)로 전년 동월 대비 1.0% 상승
- 전년 동월 대비 주요 등락 부문을 보면, 서비스물가지수(2.1%), 생활물가지수(0.1%)는 상승한 반면, 신선식품물가지수(-2.6%), 상품물가지수(-0.8%)는 하락



자료: 통계청, 경인지방통계청(2010=100)

〈그림〉 서울의 소비자물가 추이 및 동향

## 주택매매가격

### 서울의 7월 주택매매가격지수<sup>□</sup>는 전월 대비 상승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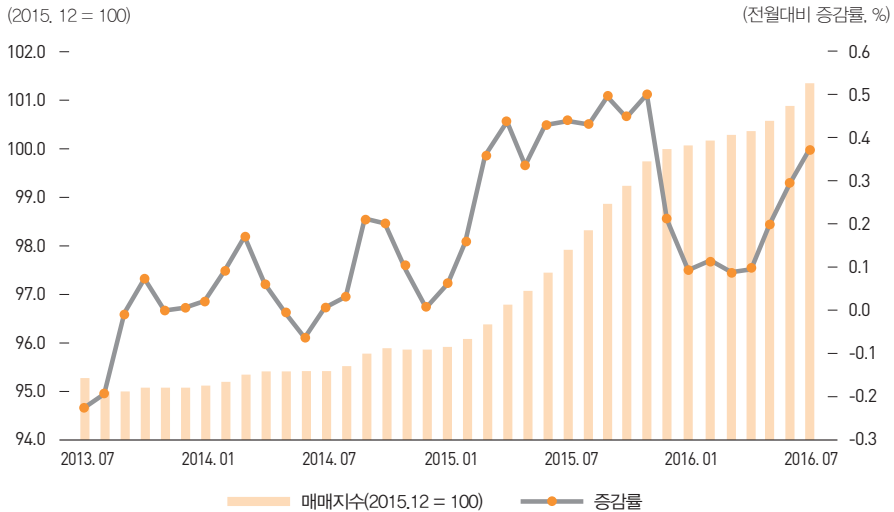
- 서울의 7월 주택매매가격지수는 101.3으로 전월 대비 0.37% 상승. 한강이남지역(0.47%)은 재건축 아파트의 투자수요 유입과 한전부지 개발 등 여러 개발 호재로 상승폭 확대. 한강이북지역(0.28%)은 접근성이 양호한 뉴타운 지역 신축아파트를 중심으로 상승세를 지속
  - 주요 상승지역: 강남구(0.73%), 송파구(0.66%), 서초구(0.59%), 영등포구(0.50%)

주 2016년 1월 자료부터 기준연도(2013.3→2015.12) 변경

### 서울의 7월 아파트 평당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상승, 거래건수는 전월 대비 증가

- 아파트 평당 평균 매매가격<sup>□</sup>(1,818만 원)은 전월 대비 1.09% 상승, 거래건수(14,170건)는 22.9% 증가
- 강동구(3.69%)의 아파트 평당 매매가격이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. 아파트 매매 거래건수는 노원구(1,367건), 용산구(1,355건), 송파구(996건) 순임

주 부동산114



자료 KB국민은행

〈그림〉 서울 주택매매가격 종합지수와 증감률 추이

### 수도권, 5개 광역시는 상승한 반면 기타 지방은 하락하는 양극화

- 전국의 7월 주택매매가격지수는 100.5로 전월 대비 0.13% 상승. 정부의 집담대출 규제에도 불구하고 기준금리 인하와 신규분양시장의 호황으로 투자수요가 증가해 상승폭이 확대됨. 수도권(0.26%)과 5개 광역시(0.03%)는 전월 대비 상승한 반면, 기타 지방(-0.08%)은 전월 대비 하락

# 주택전세가격

## 서울의 7월 주택전세가격지수<sup>㉠</sup>는 전월 대비 상승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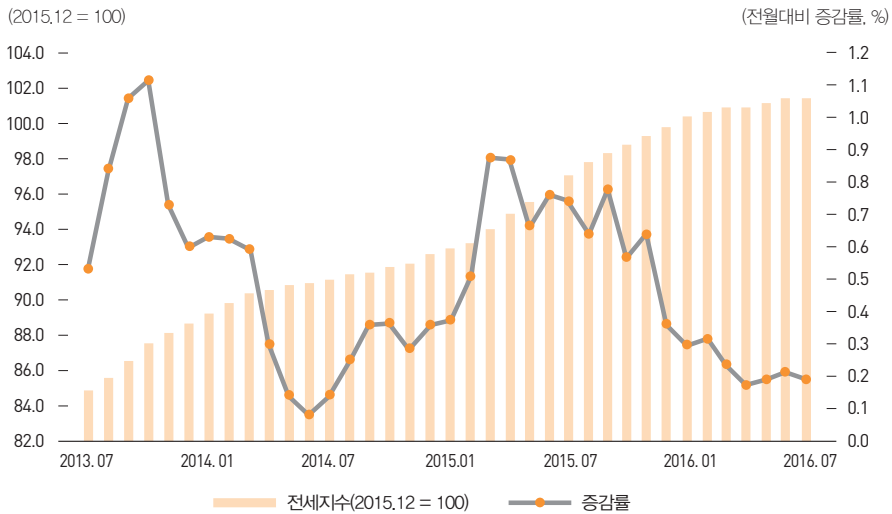
- 서울의 7월 주택전세가격지수는 101.7로 전월 대비 0.19% 상승. 한강이남지역(0.14%)은 재건축 아파트 관련 이주수요가 발생하여 전월 대비 상승. 한강이북지역(0.24%)은 역세권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직장인, 신혼부부 수요 유입이 지속되면서 상승폭이 확대됨
  - 주요 상승지역: 마포구(0.48%), 용산구(0.38%), 성동구(0.34%), 중구(0.29%)

주 2016년 1월 자료부터 기준연도(2013.3~2015.12) 변경

## 서울의 7월 아파트 평당 전세가격은 전월 대비 상승, 거래건수는 전월 대비 증가

- 아파트 평당 평균 전세가격<sup>㉡</sup>(1,278만 원)은 전월 대비 0.6% 상승, 거래건수(8,904건)는 6.6% 증가
- 중구(2.41%) 지역 아파트 평당 전세가격이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. 거래건수는 강남구(901건), 노원구(866건), 송파구(799건) 순임

주 부동산114



자료 KB국민은행

〈그림〉 서울 주택전세가격 종합지수와 증감률 추이

## 수도권은 상승폭이 확대된 반면 5개 광역시와 기타 지방은 상승폭 축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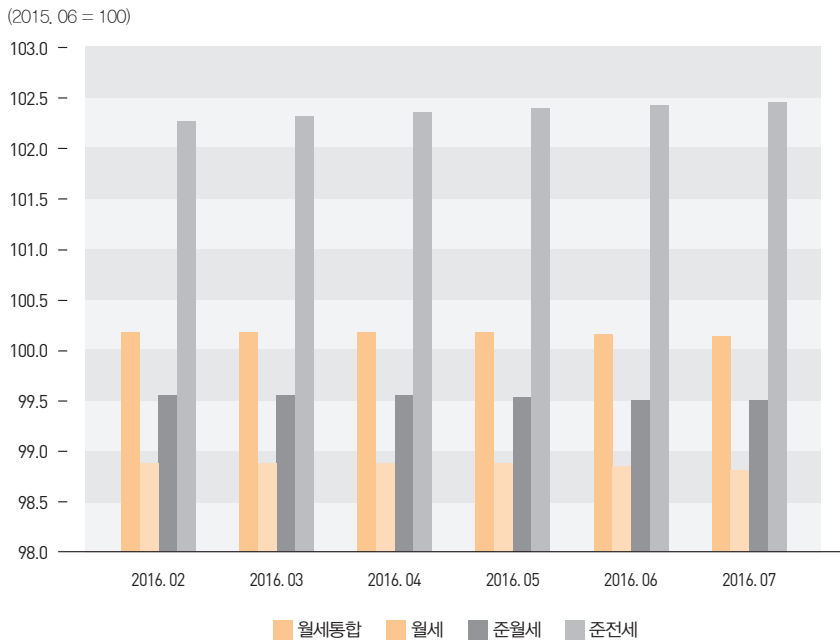
- 전국의 7월 주택전세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0.10% 상승한 100.9를 기록. 저금리 기조와 월세 전환 가속화로 전세물량 부족현상이 지속되며 전월과 비슷한 상승세 유지. 수도권(0.18%)과 5개 광역시(0.01%)는 상승세를 이어간 반면, 기타 지방(0.00%)은 전월과 보합

# 주택월세가격

## 서울의 7월 월세통합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하락

- 서울의 7월 월세통합가격지수는 100.2로 전월 대비 0.01% 하락. '준전세'(0.09%)는 전세가격 상승으로 상승폭이 확대된 반면, '월세'(-0.08%)와 '준월세'(-0.05%)는 하락세를 이어가 월세통합은 전월 대비 하락폭 축소
- 구로구는 역세권 소형주택 중심의 직장인 수요 유입에 따른 상승폭 확대로 한강이남지역(-0.01%)은 전월 대비 하락폭 축소. 한강이북지역(-0.01%)은 노후 주택지대를 중심으로 신규 단독·다세대 주택 공급이 이어지면서 도봉구와 성북구의 하락폭 확대로 상승에서 하락으로 전환

주 보증금이 1년 치 월세 미만이면 '월세', 보증금이 전세금의 60% 초과하면 '준전세', 월세와 준전세 중간영역의 월세는 '준월세'로 구분



자료 한국감정원

〈그림〉 서울시 월세통합가격지수 추이

## 전국의 7월 월세통합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하락

- 전국의 7월 월세통합가격지수는 100.2로 전월 대비 0.03% 하락. '준전세'(0.03%)가 상승세를 이어갔으나 '월세'(0.07%)는 하락폭 유지, '준월세'(-0.05%)는 하락폭 확대되어 월세통합은 전월과 같은 하락폭 유지

## 경제동향 | 금융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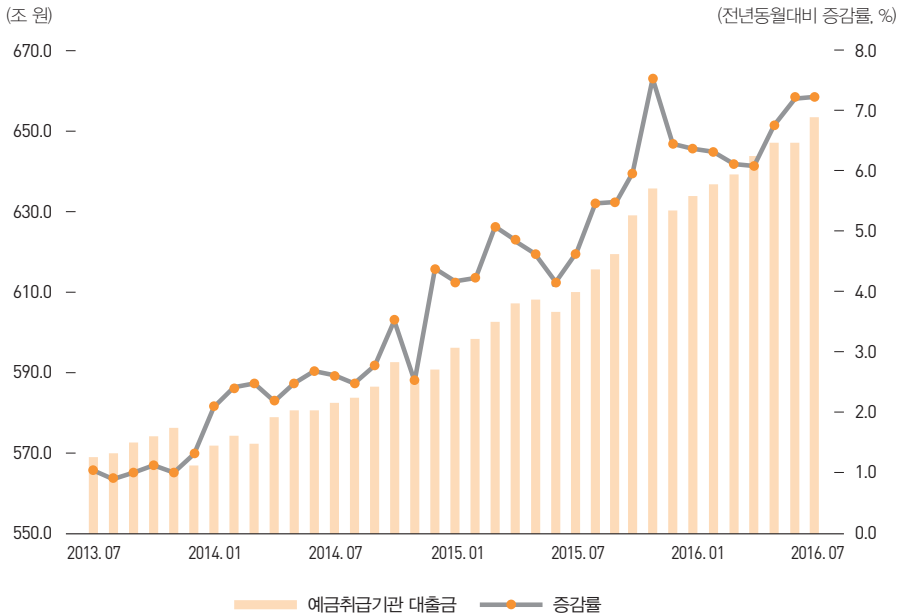
## 가계대출

## 7월 기준 서울의 전체 대출금 잔액은 전월 대비 증가

- 전체 대출금 잔액(652조 8,530억 원)은 전월 대비 0.81% 증가, 전년 동월 대비 7.1% 증가
- 그 중 예금은행(539조 3,056억 원)과 비예금은행(113조 5,474억 원)은 전월 대비 각각 0.5%, 2.2% 증가하였고, 전년 동월 대비 각각 6.5%, 10.1% 증가

## 7월 기준 전국의 전체 대출금 잔액은 전월 대비 증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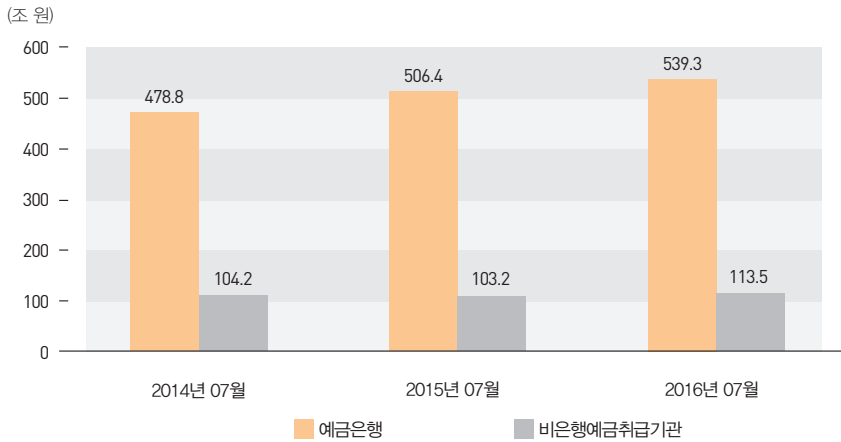
- 전체 대출금 잔액(1,841조 1,905억 원)은 전월 대비 0.9%, 전년 동월 대비 9.5% 증가
- 그 중 예금은행(1,398조 4,005억 원)과 비예금은행(442조 7,900억 원)은 전월 대비 각각 0.8%, 1.3% 증가하였고, 전년 동월 대비 각각 8.5%, 13.0% 증가



주 말잔 금액, 대출금은 예금은행과 비은행금융기관(한국수출입은행, 중합금융회사, 신탁회사, 상호저축은행, 상호금융, 새마을금고, 신용협동조합)의 총합

자료 한국은행

〈그림〉 서울시 금융기관 대출금 잔액과 증감률 추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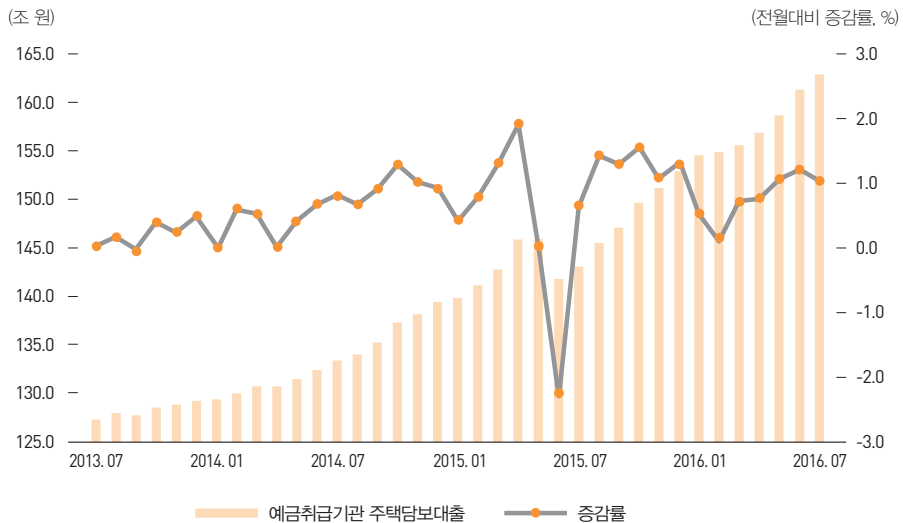


자료 한국은행

〈그림〉 서울시 예금은행과 비예금은행의 대출금 잔액

## 7월 중 서울의 가계대출 잔액과 주택담보대출 잔액 모두 전월 대비 증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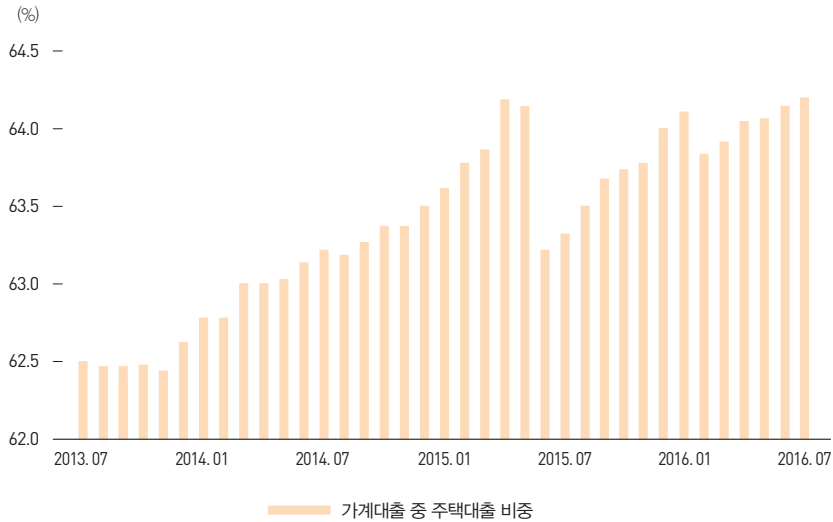
-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(252조 9,640억 원)은 전월(250조 6,433억 원) 대비 0.9% 증가
- 그 중 주택담보대출(162조 3,904억 원)은 전월(160조 7,387억 원) 대비 1조 6,517억 원(1.0%)이 증가하였고,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64.2%



주 말잔 금액, 주택대출은 주택담보대출과 주택관련 집단대출 중 주택담보 이외의 대출의 총합

자료 한국은행

〈그림〉 서울시 주택담보대출 추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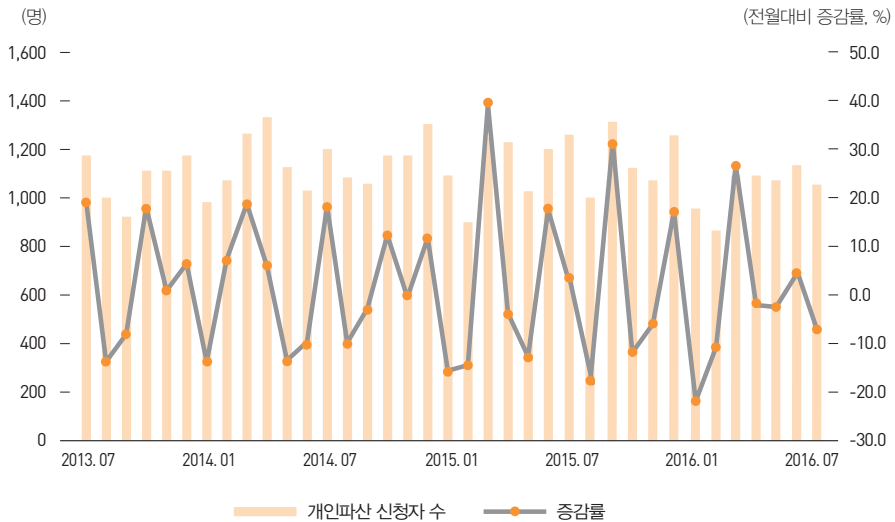


자료 한국은행

〈그림〉 서울의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 중 주택대출의 비중 추이

## 7월 중 개인파산 신청자는 전월 대비 감소

- 서울의 7월 개인파산 신청자(1,051명)는 전월(1,123명) 대비 6.4% 감소



자료 대법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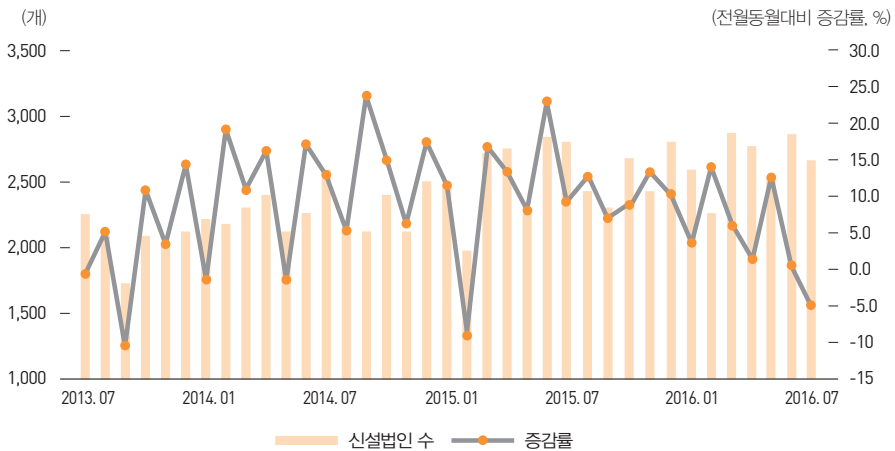
〈그림〉 서울의 개인파산 신청자 추이



# 신설법인

## 서울의 7월 신설법인 수는 전년 동월 대비 감소

- 서울의 신설법인 수는 2,660개로 전월 대비 6.4% 감소, 전년 동월 대비 4.4% 감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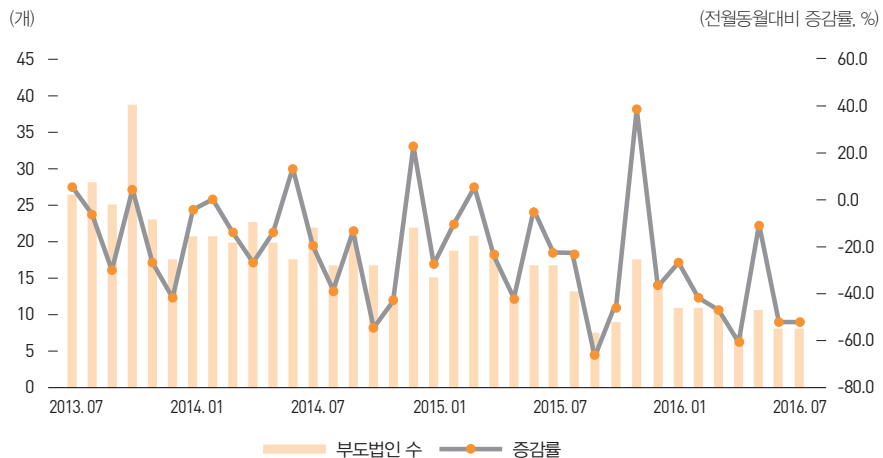


자료 중소기업청

〈그림〉 서울시 신설법인 추이

## 서울의 7월 부도법인 수는 전년 동월 대비 감소

- 서울의 부도법인 수는 8개로 전월(10개)과 동일, 전년 동월 대비 52.9% 감소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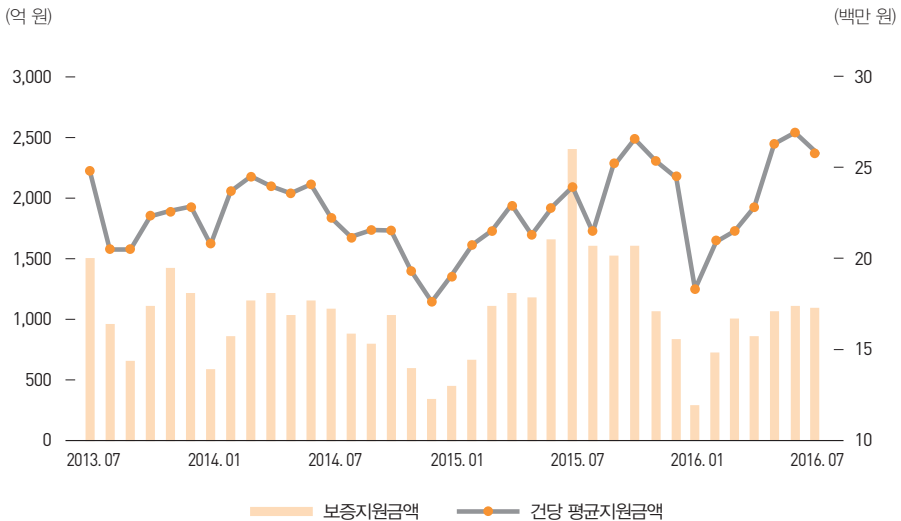
자료 금융결제원

〈그림〉 서울시 부도법인 추이

## 신용보증

### 서울의 7월 보증지원금액, 건당 평균지원금액은 전월 대비 감소, 보증건수는 증가

- 서울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서울시 신용보증공급은 7월 중 977.1억 원 / 3,821건
- 보증지원금액과 보증건수는 각각 전월 대비 2.2% 감소, 2.3% 증가, 전년 동월 대비 각각 59.1%, 61.5% 감소
- 건당 평균지원금액(2,560만 원)은 전월 대비 4.1% 감소, 전년 동월 대비 6.2% 증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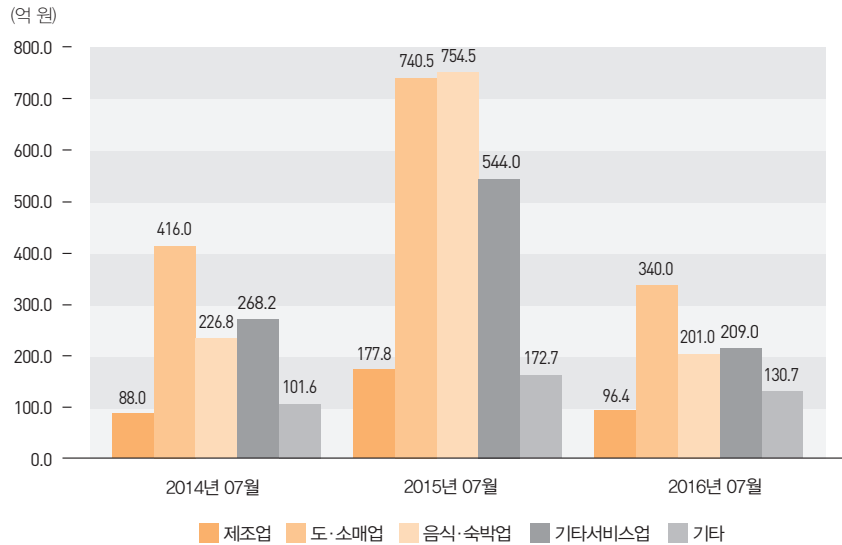


자료 서울신용보증재단

〈그림〉 서울시 신용보증 지원금액과 건당 평균지원금액 추이

### 기타서비스업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보증지원금액이 전월보다 증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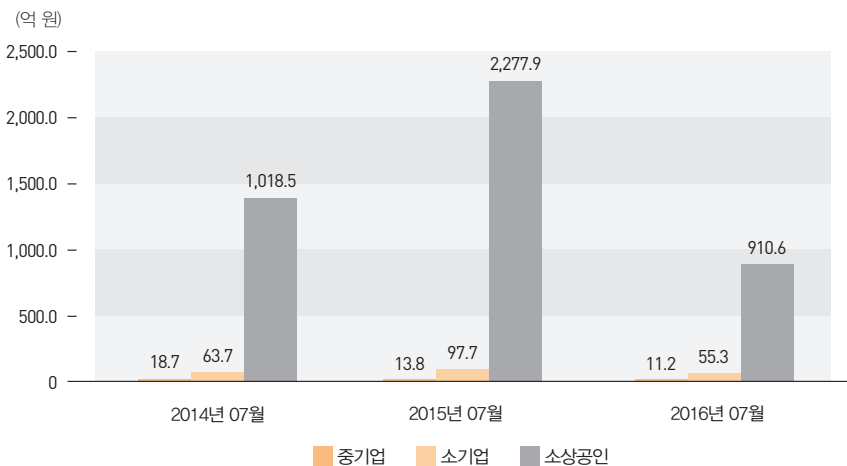
- 신용보증공급 비중은 금액 기준 도·소매업(34.8%), 기타서비스업(21.4%), 음식·숙박업(20.6%), 건수 기준 도·소매업(34.3%), 기타서비스업(27.1%), 음식·숙박업(21.4%) 순임
- 도·소매업의 보증지원금액은 340.0억 원으로 전월 대비 8.7% 감소, 전년 동월 대비 54.1% 감소. 보증지원건수는 1,311건으로 전월 대비 2.4% 증가
- 기타서비스업의 보증지원금액은 209.0억 원으로 전월 대비 9.4% 감소, 전년 동월 대비 61.6% 감소. 보증지원건수는 1,034건으로 전월 대비 6.7% 감소
- 음식·숙박업(201.0억 원), 제조업(96.4억 원)의 보증지원금액이 전월 대비 각각 3.6%, 9.1% 증가, 전년 동월 대비 각각 73.4%, 45.8% 감소



〈그림〉 업종별 공급금액 기준

## 소상공인 지원 비중은 증가한 반면, 소기업, 중기업 비중은 감소

- 소상공인 보증지원금액은 전월 대비 4.6% 증가, 전년 동월 대비 60.0% 감소한 910.6억 원으로 전체 보증금액의 93.2%를 차지. 소상공인 보증지원건수는 3,724건으로 전월 대비 2.6% 증가
- 소기업 보증지원금액은 전월 대비 38.2% 감소, 전년 동월 대비 43.3% 감소한 55.3억 원으로 전체 보증금액의 5.7%를 차지. 소기업 보증지원건수는 91건으로 전월 대비 3.4% 증가
- 중기업 보증지원금액은 전월 대비 71.2% 감소, 전년 동월 대비 19.4% 감소한 11.2억 원으로 이는 전체 보증금액의 1.1%를 차지. 중기업 보증지원건수는 6건으로 전월 대비 70.0% 감소



〈그림〉 기업규모별 공급금액 기준

## 경제동향 | 수출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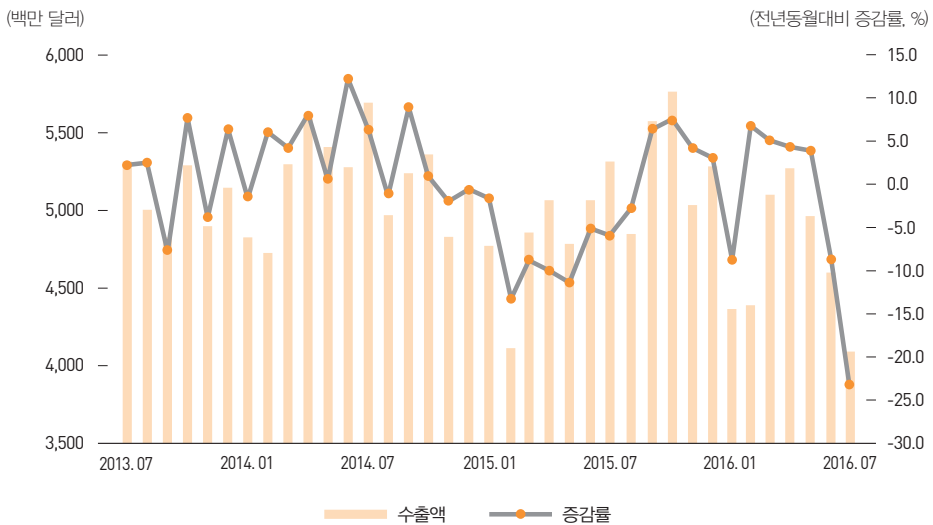
## 수출입

## 서울의 7월 수출과 수입 모두 감소

- 서울의 수출은 40.9억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 동월 대비 23.3% 감소하였고, 수입은 106.0억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 동월 대비 19.3% 감소
- 전국의 수출은 409.6억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 동월 대비 10.4% 감소하였고, 수입은 334.0억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 동월 대비 13.6% 감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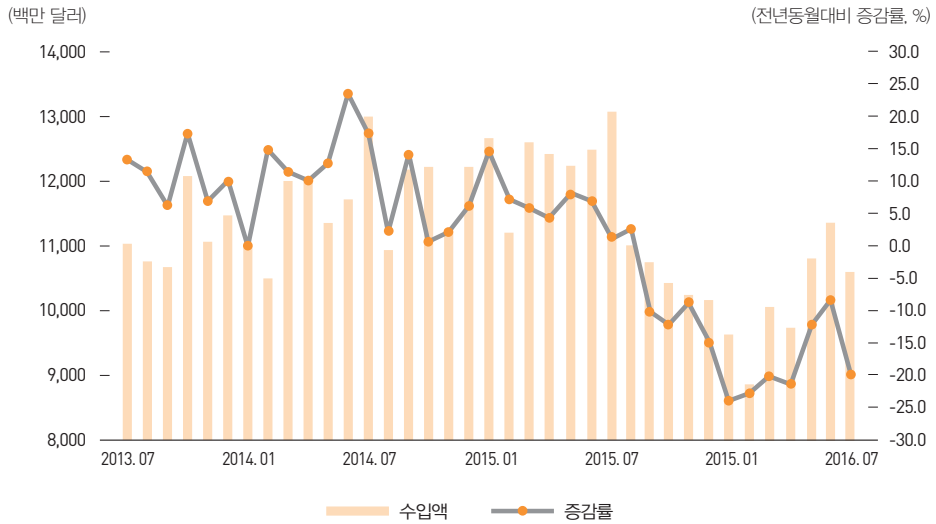
## 서울의 7월 수출 1순위는 자동차부품, 수입 1순위는 원유

- 서울의 품목별 수출은 자동차부품(462백만 달러)이 가장 많았고, 다음으로 합성수지, 반도체, 편직물, 비누·치약 및 화장품 순임. 무선통신기기(98백만 달러) 수출은 전월 대비 72.3% 감소해 순위권 밖으로 완전히 밀려났으며, 자동차부품, 반도체 등 주요 수출품목의 수출이 부진한 가운데 편직물과 비누·치약 및 화장품 수출이 약진함
- 서울의 품목별 수입은 원유(1,090백만 달러)가 가장 많았고, 다음으로 반도체, 석유제품, 자동차, 컴퓨터 순임. 원유 수입은 전월 대비 11.8% 증가해 서울의 수입 1순위 품목을 기록했으며, 지난달 수입 1순위를 기록했던 자동차(548백만 달러) 수입은 전월 대비 51.5% 감소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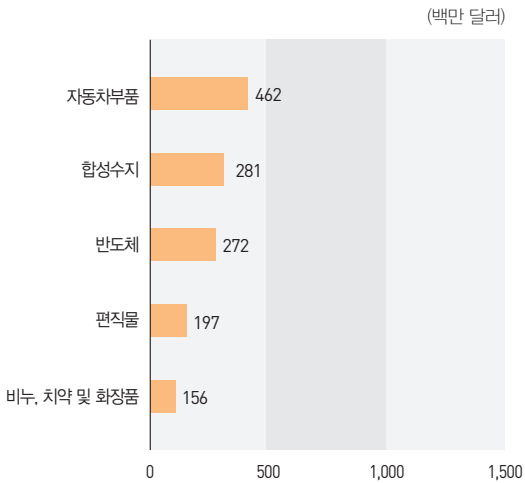
자료 무역협회

〈그림〉 서울시 수출액과 증감률 추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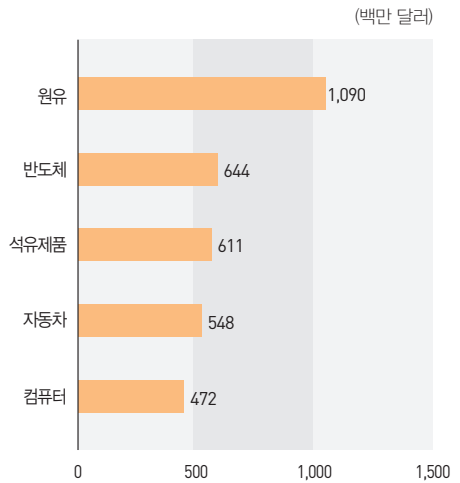
자료 무역협회

〈그림〉 서울시 수입액과 증감률 추이



자료 무역협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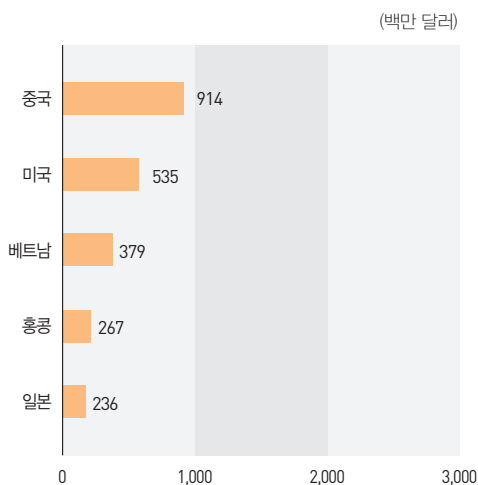
〈그림〉 7월 서울시 품목별 수출액



〈그림〉 7월 서울시 품목별 수입액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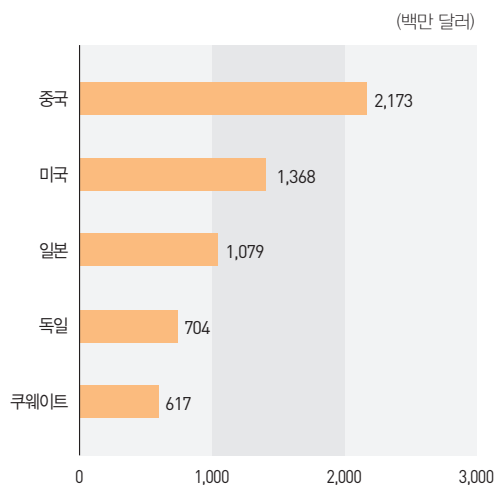
## 서울의 7월 수출·입 1순위 상대국은 중국

- 서울의 국가별 수출은 중국(914백만 달러)이 가장 많고, 그 다음으로 미국, 베트남, 홍콩, 일본 순임. 대 중국 수출액은 전월 대비 15.5% 감소, 전년 동월 대비 29.6% 감소
- 미국, 베트남, 홍콩으로의 수출액이 각각 전월 대비 20.8%, 0.5%, 2.3% 감소한 반면, 대 일본 수출은 전월 대비 4.1% 증가함
- 서울의 국가별 수입은 중국(2,173백만 달러)이 가장 많고, 그 다음으로 미국, 일본, 독일, 쿠웨이트 순임. 대 중국 수입액은 전월 대비 3.8% 감소, 전년 동월 대비 18.2% 감소
- 미국, 일본, 독일로부터의 수입액은 전월 대비 각각 21.6%, 6.1%, 26.9% 감소한 반면, 쿠웨이트로부터의 수입액은 전월 대비 59.8% 증가



자료 무역협회

〈그림〉 7월 서울시 국가별 수출액



〈그림〉 7월 서울시 국가별 수입액

## 자료출처

- 경인지방통계청, 『2016년 7월 서울시 산업활동동향』
- 경인지방통계청, 『2016년 7월 서울시 고용동향』
- 경인지방통계청, 『2016년 7월 서울시 소비자물가동향』
- 국민은행, 『2016년 7월 월간 KB주택가격동향』
- 대한민국 법원, 법원통계월보, 『<http://www.scourt.go.kr>』
- 부동산114, 『2016년 7월 서울시 아파트 평당매매가격』
- 부동산114, 『2016년 7월 서울시 아파트 평당전세가격』
- 서울신용보증재단, 『2016년 7월 신용보증동향』
- 서울특별시, 서울부동산정보광장, 『<http://land.seoul.go.kr/land>』
- 중소기업청, 『2016년 7월 신설법인동향』
- 통계청, 통계정보시스템, 『<http://kosis.kr>』
- 한국감정원, 『2016년 7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』
- 한국무역협회, 무역정보네트워크, 『<http://stat.kita.net>』
- 한국은행, 경제통계시스템, 『<http://ecos.bok.or.kr>』

